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 타당화 연구

이 준 배^{1,2)} 임 예 지¹⁾ 김 소 의¹⁾ 배 기 동¹⁾ 박 선 응^{1)*}

¹⁾고려대학교 ²⁾가톨릭관동대학교

본 연구는 진정성 척도(Authenticity Scale)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진정성 척도는 자기소외, 외부 영향 수용, 진정성 있는 삶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개인의 진정성을 평가한다.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세 가지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교차 부하를 보이는 문항이 없어 12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척도의 모형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별 집단 간 측정 동일성 분석을 통해 형태 동일성, 측정단위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수렴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진정성과 자기정체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점수는 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 확고한 정체성과 정적 상관을, 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존감, 삶의 만족, 정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정성은 자존감, 삶의 만족 및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문화권에서 활용 가능한 신뢰롭고 타당한 진정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정성, 한국판 진정성 척도, 자기정체성,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3년 Merriam Webster 사전의 2023 올해의 단어는 “진정성(authentic)”이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진정성은 거짓이 아닌 진짜나 실제,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나 정신, 사실에 부합하거나 근거하여 수용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사전에서 매해 꾸준히 높은 검색량을 보인 진정성은 특히 2023년 AI, 문화, 정체성,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 검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마도 오늘날 딥페이크 동영상이나 가상 현실, 학문적 정직함 등 수많은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진정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진정성 측정에 사용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Kernis & Goldman, 2006; Knoll et al., 2015; Wood et al., 2008). 그중에서 Wood 등(2008)의 진정성 척도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로 진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Grégoire et al., 2014; Lutz et al., 2023; Robinson et al., 2013; Song et al., 2023; Thomaes et al., 2017; Yan & Tang, 2024; Wilt et al., 2019)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Wood 등(2008)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하고자 한다.

진정성의 정의와 측정

고대 서양 철학에서 진정성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최고의 선에 도달한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Hutchinson, 1995), 본질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발전하였다(Kernis & Goldman, 2006). 본질주의 측면에서 진정성은 본질적인 자기 또는 본질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반면, 실존주의 측면에서는 삶의 방식이나 존재 방식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자기 창조를 강조한다(Pugh et al., 2017). 진정성

에 대한 심리학 연구 역시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Sutton, 2020). 1960년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웰빙과 자기실현의 중심적 특징으로 진정성을 제안하였고(Jourard, 1964, 1966; Maslow, 1968; Rogers, 1959), 이후 긍정심리학자들은 진정성을 인간이 심리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Peterson & Seligman, 2004). 심리학 내에서 진정성은 개인이 진짜 자기(true self)에 따라 행동하는 일관성(coherence)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진정성 측정에는 Wood 등(2008)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Authenticity Scale)가 널리 사용되는데,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기소외(self-alienation)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인지적 표상 간의 불일치 정도, 구체적으로 자신을 잘 알지 못하거나 진짜 자기와 접촉할 수 없다는 주관적 느낌을 가리킨다. 높은 자기소외는 낮은 수준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음으로 외부 영향 수용(accepting external influence)은 타인의 영향을 수용하는 정도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자기소외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삶(authentic living)은 자신의 감정, 가치와 신념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결국 진정성은 높은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삶과 낮은 수준의 자기소외를 경험하고 외부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최적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성과 정신건강

진정성과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과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진정성과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진정성과 웰빙 간의 정적 관계는 성별, 연령, 표본의 유형(대학생 혹은 직장인)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유의하게 나타났다(Sutton, 2020). 진정성은

자존감과는 정적으로, 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었다(Boyras et al., 2014; Boyras & Kuhl, 2015; Neff & Harter, 2002; Wood et al., 2008; Xia et al., 2022). 또한 진정성은 직장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Knoll et al., 2015), 높은 성과 및 직무 만족과 연관되었다(van den Bosch & Taris, 2014). 높은 진정성은 높은 긍정 정서 경험과 낮은 부정 정서 경험과도 관련이 있었다(Goldman & Kernis, 2002; Heppner et al., 2008; Lenton et al., 2013; Lenton et al., 2016; Rivera et al., 2019; Thomaes et al., 2017; Wood et al., 2008).

진정성 척도의 각 하위요인과 정신건강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존감, 긍정 정서, 심리적 웰빙, 정신 건강, 삶의 만족, 삶의 의미는 진정성 있는 삶과 정적으로, 자기소외 및 외부 영향 수용과는 부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 및 스트레스는 진정성 있는 삶과는 부적으로, 자기소외 및 외부 영향 수용과는 정적으로 연관되었다(Coscioni et al., 2024; Grégoire et al., 2014; Nartova-Bochaver et al., 2021; Wood et al., 2008; Xia et al., 2022). 이와 같이, 진정성 척도의 하위요인 중 진정성 있는 삶은 정신건강과는 긍정적 관계를, 자기소외 및 외부 영향 수용은 부정적인 관계를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진정성과 자기정체성

자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은 자신의 인생에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내면화된 가치나 목표, 신념 등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기술된 자기규정이다(문현 등, 2023; 윤가영 등, 2022; Moon et al., 2025; Waterman, 1984). 따라서 개념상 정체성과 진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성이 ‘자신의 진짜 자기에 따라 행동하는 일관성’이라면, 자신의 진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여러 연

구자들이 진정성과 정체성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했지만(Barrett-Lennard, 1998; Erickson, 1995; Jongman-Sereno & Leary, 2019; Kernis & Goldman, 2006; Maslow, 1971; Schmader & Sedikides, 2018), 실제로 경험적으로 두 개념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체성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탐색(exploration) 여부와 삶의 방향에 대한 전념(commitment) 여부에 따라 정체성 지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측정하였다(Marcia, 1966). 그러나 이러한 범주적 측정 방식의 한계가 제기되고, 또 탐색과 전념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체성 발달의 여러 차원을 구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Luyckx et al., 2008)는 이중순환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다섯 가지 과정에 초점을 둔다. 첫 번째 순환에 해당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은 다양한 정체성 대안을 넓고 알게 탐색하는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과 두루 탐색을 기반으로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는 전념 생성(commitment making) 과정을 포함한다. 이후 정체성 평가 과정은 전념을 생성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을 시도하는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을 거쳐 해당 전념을 내면화하는 전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 과정을 포함한다. 깊이 탐색 과정에서 전념의 대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시 두루 탐색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한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민만 이어지는 상태, 즉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과정으로는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이 있다.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가 정체성 발달이 이뤄지는 과정을 측정한다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는 현시점에서 정체성 발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며 통합된 답변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긴 하지만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주변 상황에 따라 자기관이 좌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아예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척도를 모두 사용하였다.

기존 진정성 척도 번역의 문제점

본 연구진이 진정성 척도에 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이향숙과 신희천(2011)의 번역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번역본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향숙과 신희천은 진정성 척도에 대한 번역 및 타당화 연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 기본적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예비 연구로 척도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척도 번역 및 타당화 과정에 필요한 탐색적 요인분석이나 측정 동일성 검증 등의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직 확인적 요인분석만 시행하였다. 최근 김미림과 임예지(2024)는 국내 척도 번역 과정의 실태를 점검하며 번역 및 타당화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김미림과 임예지의 지침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은 물론 측정 동일성 검증까지 시행하였다.

둘째,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향숙과 신희천(2011)의 번역본 중 5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16으로 지나치게 낮아 원척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향숙과 신희천은 이 문제에 대해 경험적 근거 없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실제로 진정성 척도의

프랑스어 번역 및 타당화 연구(Grégoire et al., 2014)와 중국어 번역 및 타당화 연구(Xia et al., 2022)에서도 모든 문항들이 원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묶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 척도의 문항들을 원점에서 다시 번역 및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렴 및 공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향숙과 신희천은 논문 내에 문항의 번호만 제시할 뿐 실제 문항을 제시하지 않아 이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한국어판 번역본을 논문 내에 제시하였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진정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Wood 등(2008)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를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심리학 교수와 대학원생이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이중언어자가 한국어로 역번역하였다. 이후 번역 및 역번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리학 대학원생 세 명을 포함, 토론을 통해 최종 번역본을 만들었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한국의 4년제 사립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 203명을 모집하였다(남성 77명, 여성 126명). 참여자들의 나이는 19세에서 29세였고, 평균 나이는 20.89세(표준편차 = 1.74)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한 후 수업 크레딧을 받았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측정 도구

진정성

진정성 측정을 위해 Wood 등(2008)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Authenticity Scal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며, 자기소외를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외부 영향 수용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진정성 있는 삶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항상 내가 믿는 것을 지킨다”)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자기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실시한 뒤 세 하위요인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Wood 등(2008)의 연구에서 자기소외, 외부 영향 수용, 진정성 있는 삶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2, .84,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분석

통계 분석을 위해 Jamovi 2.5.2와 Mplus 8.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정규성,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제거 시 신뢰도 증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문항의 양호도를 판단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α 와 McDonald's ω 를 모두 살펴보았다. Cronbach's α 는 심리학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타우동형(Tau-equivalence)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수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타우동형을 가정하지 않는 오메가 계수(ω)를 제시하고 있다(김미림, 임예지, 2024; McNeish,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와 McDonald's ω 를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Everitt(1975)에 따르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표본 크기와 문항의 비율이 최소 10 이상일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12개이므로 문항 대비 표본($N = 203$)의 비율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연구 1의 표본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회전 방법은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중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도표(scree plot; Cattell, 1966),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 Horn, 1965), 누적설명분산, 모형적합도,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 다음으로 최종 문항을 선택하기 위해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논의

문항 및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1, McDonald's ω 는 .83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간의 상관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문항의 양호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낮거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지 않거나 문항제거 시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하였다(장승민, 2015). 각 문항의 평균은 3.71~5.28로 극단적인 점수를 보이지 않았고 표

표 1. 문항 분석 결과($N = 203$)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문항제거 시 Cronbach's α	문항제거 시 McDonald's ω
문항1	5.23	1.27	-0.69	-0.08	.50***	.825	.827
문항2	4.02	1.69	0.09	-1.21	.58***	.821	.824
문항3	3.71	1.55	0.24	-1.07	.56***	.822	.826
문항4	4.21	1.67	0.06	-1.24	.63***	.815	.820
문항5	4.06	1.66	0.14	-0.94	.53***	.825	.829
문항6	3.51	1.48	0.44	-0.48	.55***	.822	.827
문항7	4.42	1.75	-0.19	-1.09	.72***	.806	.810
문항8	5.25	1.15	-0.52	-0.22	.48***	.825	.826
문항9	5.19	1.32	-0.69	0.23	.57***	.819	.821
문항10	4.60	1.70	-0.27	-1.08	.74***	.803	.806
문항11	5.25	1.24	-0.35	-0.60	.60***	.817	.817
문항12	5.28	1.59	-0.55	-0.86	.62***	.815	.819

*** $p < .001$

준편차 또한 모두 1.0 이상으로 적정 수준이었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도 .30 이상으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제거 시 신뢰도가 상승하는 문항도 없었다. 더불어, 문항이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 미만, 7 미만인지 살펴보았다(Curran et al., 1996).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모든 문항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12개 문항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가 요인분석에 사용하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KMO 적합성 지수는 표본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적합한지를 나

타내며 .80 이상을 양호하다고 판단한다(Kaiser, 1974).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문항 간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영가설을 검증하며, $p < .05$ 일 때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Bartlett, 1950). 연구 결과, KMO 적합도 지수는 .82로 양호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chi^2(66) = 880.053$, $p < .001$ 로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 도표와 평행 분석을 살펴본 결과(그림 1), 연구 자료의 고유치 변화 기울기가 4 요인부터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4요인에서 무선자료의 고유치가 연구자료 고유치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를 기반으로 요인 개수를 결정할 경우 주로 고유치의 변화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전 요인 개수로 결정하며, 평행 분석의 경우 주로 무선자료의 고유치가 연구 자료의 고유치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전 요인 개수를 선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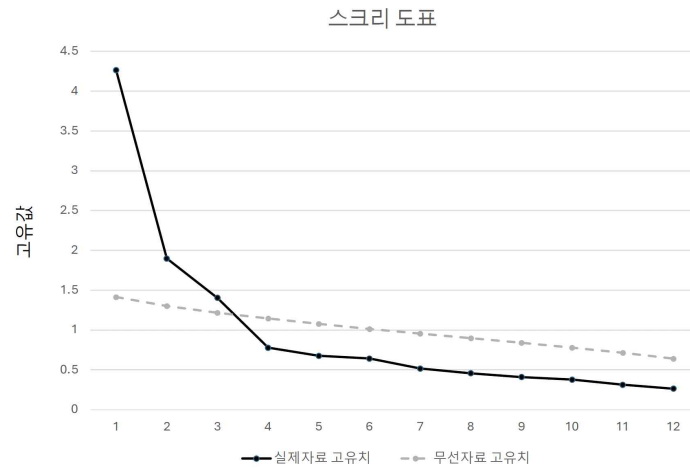


그림 1. 평행 분석 결과

표 2.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203$)

문항	요인		
	1	2	3
요인 1. 자기소외(Self-Alienation)			
10. 나는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R)	.828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R)	.768		
2. 나는 진짜 내 속마음을 모르겠다. (R)	.719		
12.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R)	.610		
요인 2. 외부 영향 수용(Accepting External Influence)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R)		.790	
6.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R)		.741	
4.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한다. (R)		.677	
5.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R)		.546	
요인 3. 진정성 있는 삶(Authentic Living)			
8. 나는 항상 내가 믿는 것을 지킨다.			.852
11. 나는 나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인생을 살고 있다.			.693
9.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			.474
1.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307
고유치	4.27	1.90	1.41
설명분산(%)	35.54	15.81	11.71
Cronbach's α	.826	.787	.739
McDonald's ω	.831	.792	.756

주 1. (R) = 역채점 문항

주 2. 요인부하량은 .30 이상인 값만 표기함.

다. 따라서 4요인 바로 전인 3요인을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요인 수로 고려하였다. 더 나아가 3요인 구조의 누적설명분산과 모형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χ^2 (Chi-Square Test of Model Fit)를 제외하고 CFI, TLI, RMSEA, SRMR를 살펴 보았으며 CFI와 TLI의 경우 .95이상을, RMSEA, SRMR은 .08미만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Hu & Bentler, 1999; Kline, 2013). 분석 결과, 3요인 구조의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CFI, TLI, RMSEA, SRMR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으며 누적설명분산은 63.07%였다, $\chi^2(33) = 44.586$, $p > .05$, CFI = .986, TLI = .972, RMSEA = .042 (90% CI: .000, .070), SRMR = .028. 원칙도 또한 3요인인 것을 고려하여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최종 요인 수를 원칙도와 동일한 3요인으로 결정하였다.

3요인 구조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문항을 선택하기 위해 각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면서 두 개 이상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를 나타내는 교차부하(crossloading)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였다(Osborne & Costello, 2019). 분석 결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30이상이었으며 교차부하를 보인 문항이 없었기에 모든 문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는 원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요인 1은 35.55%의 설명량을 보였으며 원칙도의 하위요인인 Self-Alienation과 동일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자기소외’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의 경우 전체 분산 중 15.81%를 설명하였으며 원칙도의 Accepting External Influence와 동일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외부 영향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 3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원칙도의 하위요인인 Authentic Living에 속한 4문항이므로 요인 3은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칭하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자기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r = .33$, $p < .001$), 자기소외와 진정성 있는 삶($r = .47$, $p <$

.001), 외부 영향 수용과 진정성 있는 삶($r = .28$, $p < .001$) 모두 유의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번역한 진정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 맥락에서의 진정성을 측정했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Lopez & Rice, 2006; Theran, 2011) 성별을 기준으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체성 발달 관련 변인을 측정하여 수렴 타당도를, 자존감, 삶의 만족, 정서를 측정하여 공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의 목적은 진정성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내용이 유사한 개념과 실제로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체성과 진정성 개념이 갖고 있는 유사성을 고려할 때 정체성은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변인이다. 공준 타당도는 해당 척도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 중 이미 잘 검증된 척도가 있는 개념과의 관련성을 통해 평가한다. 진정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따르면, 진정성은 진짜 자기를 반영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좋은 삶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Hestir, 2008). 인간 중심 이론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자존감 개념과 관련이 높고, 일관된 자기 유지의 자기 성취를 발달시키며 삶의 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Rogers, 1951, 1961).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동시에 자존감 및 삶의 만족과 연관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정성 척도와 자존감,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Boyraz et al., 2014; Boyraz & Kuhl, 2015; Heppner et al., 2008; Lenton et al., 2013, 2016; Thomaes et al., 2017; Twomey & O'Reilly, 2017; Wood et al.,

2008). 또 진정성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성인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한국의 성인 400명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남성 200명, 여성 200명). 참여자들의 나이는 20세에서 59세였고, 평균 나이는 39.64세(표준편차 = 11.04)였다. 참여자의 직업은 학생 8.8%, 직장인 63.7%, 자영업 6.0%, 전업 가사 8.3%, 무직 9.2%, 기타 4.0%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한 후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측정 도구

진정성

연구 1에서 사용한 Wood 등(2008)의 진정성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진정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을 역채점 한 후 세 하위요인을 평균 내어 총점을 계산하였다. 자기소외, 외부 영향 수용, 진정성 있는 삶, 총점의 신뢰도(ω)는 각각 .87, .74, .69, .84이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정체성

참여자의 정체성 발달 수준은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Luyckx 등(2008)이 개발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를 사용했다. 한국어 번역 및 타당화는 Park 등(2023)이

시행하였다. 이 척도는 각 5문항으로 이루어진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두루 탐색; $\omega = .84$),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전념 생성; $\omega = .90$), “내가 세워놓은 삶의 목표가 정말 내게 잘 맞는지 생각한다”(깊이 탐색; $\omega = .65$),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확신한다”(전념 동일시; $\omega = .88$),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기가 힘들다”(반추적 탐색; $\omega = .82$)가 있다.

두 번째 척도는 Kaufman 등(2015)이 개발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이었다. 이 척도는 총 27개 문항,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박선웅 등(2023)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12문항으로 줄인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인 확고한 정체성(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교란된 정체성(예,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 정체성 결여(예,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것 같다”)의 신뢰도(ω)는 각각 .78, .65, .83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자존감

참여자들의 자존감 수준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Moon 등(2025)이 한국어로 번역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신뢰도(ω)는 .92이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가 있다.

삶의 만족

참여자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5문항으로 구성된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 등(2012)이 번역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alpha = .86$).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가 있다.

정서

Mackinnon 등(1999)의 단축형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Short Form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긍정 정서(예, “열정적임”)와 부정 정서(예, “두려움”)를 측정하였다. 한국어 문항은 Lee 등(2019)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느끼지 않음, 5 = 자주 느낌)로 응답하였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신뢰도(α)는 각각 .75와 .85이었다.

자료분석

통계 분석을 위해 Jamovi 2.5.2와 Mplus 8.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하는 모수와 표본 크기의 이상적인 비율을 1:20으로 제안한 Jackson(2003)에 따라 연구 2의 표본 크기($N = 400$)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기반한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척도와 동일하게 단일요인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χ^2 (Chi-Square Test of Model Fit)를 제외하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SRMR를 살펴보았다(Fabrigar et al., 1999).

다음으로 본 척도가 다른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에 대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각 단계에서 가정하는 동등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을 순차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진행된다. 먼저, 집단 간 형태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형태 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두 집단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측정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요인계수뿐만 아니라 절편에 동등화 제약을 추가하는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한다. 동일성 충족 여부는 각 단계의 모형적합도 지수로 판단했는데 형태 동일성은 모형 자체의 적합도로 판단했으며 측정단위와 절편 동일성은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χ^2 차이 검증과 CFI 차이 값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절차를 통해 도출된 최종 모형의 수렴 타당도와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와 유사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정체성 발달 척도와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진정성과 관련 변인인 자존감, 삶의 만족, 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본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해 공존 타당도를 확인했다.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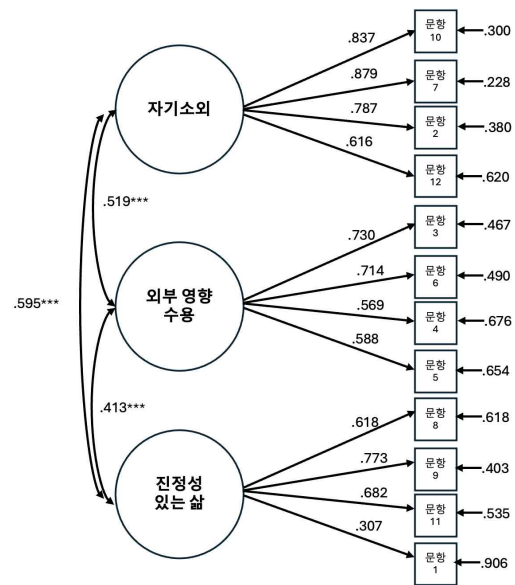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원척도에서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단일요인 모형을 본 연구에서도 경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단일요인 모형의

표 3.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N = 400$)

모형	$\chi^2(df)$	CFI	TLI	RMSEA[90% CI]	SRMR
단일요인(경쟁모형)	465.630(54)***	.748	.692	.138[.127, .150]	.095
3요인(연구모형)	100.079(51)***	.970	.961	.049[.035, .063]	.041

*** $p < .001$ 표 4.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 = 400$)

하위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자기소외	10	1.00	0.00	.84***
	7	1.09***	0.05	.88***
	2	0.93***	0.05	.79***
	12	0.73***	0.06	.62***
외부 영향 수용	3	1.00	0.00	.73***
	6	0.94***	0.09	.71***
	4	0.76***	0.08	.57***
	5	0.87***	0.09	.59***
진정성 있는 삶	8	1.00	0.00	.62***
	9	1.22***	0.11	.77***
	11	1.08***	0.11	.68***
	1	0.52***	0.10	.31***

*** $p < .001$ 그림 2.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 최종 모형과 표준화 계수 ($N = 400$)*** $p < .001$

경우 CFI, TLI이 .95이상 및 RMSEA, SRMR이 .08 미만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반면, 3요인 연구모형의 경우, CFI, TLI, RMSEA, SRMR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표 3). 따라서 원척도와 동일한 연구모형을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최종 모형은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31~.84로 모두 유의했다, $p < .001$. 또한, 하위요인 간 상관관을 확인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모두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

측정 동일성 검증

본 척도가 다른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남 = 200명, 여 = 200명)을 대상으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표 5). 먼저 남녀 집단 모두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 검증을 실시했다. 형태 동일성 결과, TLI가 .95보다 낮았지만 CFI, RMSEA, SRMR이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여 남녀 집단 모두 동일하게 3요인 연

표 5. 측정 동일성 검증 결과(남 = 200명, 여 = 200명)

	모형	$\chi^2(df)$	CFI	TLI	RMSEA[90% CI]	SRMR	$\Delta\chi^2(\Delta df)$	ΔCFI
1	형태 동일성	182.541(102)	.951	.937	.063[.048, .077]	.055		
2	측정단위 동일성	194.642(111)	.949	.940	.061[.047, .075]	.066	12.101(9)	.002
3	절편 동일성	211.326(120)	.945	.939	.062[.048, .075]	.068	16.684(9)	.004

구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요인구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oscioni et al., 2024; Nartova-Bochaver et al., 2021; Wood et al., 2008; Xia et al., 2022).

다음으로 측정단위 동일성과 절편 동일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모형의 적합도를 이전 단계에 수행된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였다. 모형적합도가 이전 모형적합도보다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 각 단계에 수행된 동일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모형적합도 간 차이는 χ^2 차이 검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χ^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CFI값의 차이 .01이상을 기준으로 모형 적합도 간 차이를 판단하기도 한다(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따라서 χ^2 값의 차이와 $\Delta CFI < .01$ 을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동일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측정단위 동일성 검증을 위해 각 집단의 요인계수가 서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한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의 χ^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9) = 12.101$, $p > .05$. 또한, CFI 차이도 .002로 .01보다 작으므로 제약을 추가한 후에도 모형적합도가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아 측정단위 동일성이 지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단위 동일성이 지지되었기에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요인계수와 더불어 절편을 같다고 가정한 절편 동일성 모형과 측정단위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χ^2 의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으며 CFI차이도 .004로 .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9) = 16.684$, $p > .05$. 이로써 3요인 구조의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는 남녀 집단에서 동일한 3요인 구조로 측정되고 있으며 요인계수 및 절편의 동일성까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수렴 타당도 확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정체성 발달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했다(표 6). 진정성 척도의 총점은 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 확고한 정체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중 진정성 있는 삶은 진정성 총점과 같은 방향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자기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의 경우 한 가지 예외(외부 영향 수용과 깊이 탐색)를 제외하고는 정반대의 상관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적절한 수렴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공존 타당도 확인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존감, 삶의 만족, 정서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진정성 총점과 진정성 있는 삶 하위척도는 자존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 하위척도는 이와 반대로 자존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부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와 관련 측정도구와의 상관분석($N = 400$)

변인	평균(표준편차)	진정성 총점	자기소외	외부 영향 수용	진정성 있는 삶
두루 탐색	3.54(0.64)	.36***	-.28***	-.22***	.36***
전념 생성	3.14(0.77)	.54***	-.52***	-.26***	.47***
깊이 탐색	3.33(0.57)	.22***	-.24***	-.03	.22***
전념 동일시	3.15(0.71)	.53***	-.51***	-.26***	.47***
반추적 탐색	3.29(0.81)	-.57***	.58***	.39***	-.31***
확고한 정체성	3.50(0.61)	.60***	-.58***	-.26***	.54***
교란된 정체성	2.36(0.61)	-.57***	.51***	.41***	-.39***
정체성 결여	2.48(0.83)	-.65***	.72***	.34***	-.39***
자존감	4.55(0.72)	.60***	-.61***	-.31***	.43***
삶의 만족	2.83(0.78)	.36***	-.39***	-.13**	.30***
긍정 정서	3.15(0.66)	.41***	-.36***	-.21***	.39***
부정 정서	2.95(0.81)	-.52***	.50***	.35***	-.34***
평균(표준편차)		3.37(0.55)	2.71(0.87)	2.85(0.67)	3.67(0.57)

** $p < .01$. *** $p < .001$

다. 요약하면, 진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는 높아지고 부정 정서는 낮아졌는데, 이는 본 척도가 적절한 공존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Wood 등(2008)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번역 및 역번역한 진정성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의 문항 모두 양호도가 좋았으며, 고유치, 스크리 도표, 평행 분석, 누적설명분산, 모형 적합도,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도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차부하를 보이는 문항도 없었다. 문항 구성도 원척도와 동일하였기에 원척도에 따라 각 요인을 자기소외, 외부 영향 수용, 진정성 있는 삶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고, 하위요인 간 상관도 모두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모형이 적절한지 살피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 모형으로 설정한 단일요인 모형과 달리 3요인 구조의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는 모든 지수가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원척도와 동일한 3요인 구조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추가로, 남녀 집단에 대한 본 척도의 측정 동일성을 확인한 결과,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는 형태 동일성, 측정단위 동일성, 절편 동일성을 확보해 상이한 집단에서도 측정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와 관련 변인인 정체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두 개의 정체성 발달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정성과 정체성 발달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된 변수 간 관계와 일치하였다. 진정성과 준거변인인 자존감, 삶의 만족, 정서와의 상관관계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 간 관계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본 척도는 적절한 수렴 및 공준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문화권 내에서 개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지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Wood 등(2008)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는 자기 소외와 외부 영향 수용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진정성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실제 경험과 인지적 표상의 일치 및 타인의 영향을 수용하는 정도, 그리고 자신의 감정, 가치와 신념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정도를 토대로 진정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는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 구조는 물론 동일한 문항 구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진정성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English와 Chen(2011)은 동양인과 서양인 간 자기개념 일관성을 경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향후 진정성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서구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수용과 함께 전근대적 가치의 해체가 이루어지며 매우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구의 문화와 전근대의 문화가 혼재함에 따라 한국인들은 진짜 자기에 대해 성찰하는 반성적 근대화의 시기에 진입하게 되었다(정용환, 2008). 더욱이 IT기술 혁신과 일자리 변화가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노동, 교육, 가족 체계 등이 급변하였고, 현대 한국인들은 실존적 불안을 직면하며, 삶의 의미 대신 감각적 쾌락을 지향하

는 형태로 진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김문조, 박형준, 2012). 또한, 국내에서 진정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고 주로 리더십, 마케팅, 관광 등의 분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유선옥, 2020) 한국인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진정성과 심리·사회적 변인 간의 연관성, 특히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한국인의 진정성 수준의 변화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척도가 국내 사회 및 성격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학 분야에서 활용되어 한국인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성 척도는 국내에서 이향숙과 신희천(2011)이 번역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척도는 제대로 된 번역 및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향숙과 신희천이 번역한 문항 중 한 문항은 지나치게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라는 점이다. 이향숙과 신희천은 이를 문화적 차이라고 설명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요인 부하량은 단순히 번역상의 오류였을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프랑스어, Grégoire et al., 2014), 중국(Xia et al., 2022), 러시아(Nartova-Bochaver et al., 2021), 브라질과 포르투갈(Coscioni et al., 2024), 폴란드(Jastrzębski et al., 2025) 등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진정성 척도 번역 및 타당화 연구에서도 원척도의 3요인 구조가 동일하게 지지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또 이향숙과 신희천(2011)은 번역한 척도 문항을 논문에 제시하지 않아 후속 연구자들의 척도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는 김미림과 임예지(2024)가 제시한 척도 번역 및 타당화 과정의 제안 사항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다른 표본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진정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교차 타당화했으며, 측정 동일성 검증까지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진정성 척도는 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진정성 연구에 많이 사용

되기를 기대한다.

진정성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인이다.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은 자존감, 삶의 만족 및 의미, 심리적 웰빙, 긍정 정서 등은 진정성 척도 하위요인 중 진정성 있는 삶과는 정적으로, 자기소외 및 외부 영향 수용과는 부적적으로 연결되었다(Coscioni et al., 2024; Grégoire et al., 2014; Nartova-Bochaver et al., 2021; Wood et al., 2008; Xia et al., 2022).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정성 있는 삶은 자존감, 삶의 만족, 긍정 정서와는 정적, 부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소외 및 외부 영향 수용은 정반대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정성이 한국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도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향후 국내 심리학 연구에서 진정성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정성과 정체성 발달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진정성과 정체성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Barrett-Lennard, 1998; Erickson, 1995; Jongman-Sereno & Leary, 2019; Kernis & Goldman, 2006; Maslow, 1971; Schmader & Sedikides, 2018),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최근 정체성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 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진정성은 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 확고한 정체성 등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변인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반추적 탐색, 교란된 정체성, 정체성 결여 등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변인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두 개념이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지 이는 횡단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정체성이 진정성에 선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체성과 진정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분명 구분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 자기탐색 후에 설정한 삶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면, 진정성은 그 방향성과 실제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확고한 정체성의 문항은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다’처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전념동일시 문항은 ‘내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내게 잘 맞을 것 같다’처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측정한다. 반면, 진정성 있는 삶의 문항은 ‘나는 나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인생을 살고 있다’처럼 정체성 형성을 통해 확인된 방향성에 부합하게 실제로 살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먼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남성 과 여성 참여자 간 측정 동일성이 지지되기는 하였지만, 청소년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척도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으로 척도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판 진정성 척도가 전 연령대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체성, 자존감, 정서 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의 수렴 및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변별 타당도나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자존감을 통제한 후에도 진정성은 대처 전략을 고유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ernis & Goldman, 2006). 향후 관련 개념과는 구분되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수일 동안 하루의 삶에 대한 일기를 쓰게 한 후, 정체성을 통제한 후에도 진정성이 얼마나 진정한 자기에 가깝게 하루를 살았는지를 예측하는지 살펴본다면 정체성과 구분되는 진정성만의 독특한 특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볼지 못했고 시간에 따른 진정성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진정성이 진짜 자기에 따라 행동하는 일관성으로 정의되는 만큼, 시간의 흐름과 상황적 변화에 따라 얼마나 유동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이준배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과정에서 정체성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 배움교양대학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임예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사회 문제와 고정관념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김소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박사통합과정생이다.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격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배기동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박선웅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체성과 물질주의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정체성의 심리학>과 <자기다움 리더십>이 있다.

참고문헌

김미림, 임예지 (2024). 번안 심리검사 타당화 작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검수와 보고 관행에 대한 검토와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3(3), 261-295.

김문조, 박형준 (201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 611-643.

문현, 이다예, 김소을, 박수연, 박선웅 (2023).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과 학년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4), 553-572.

박선웅, 김혜민, 이준배, 문현 (2023).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37-258.

이향숙, 신희천 (2011).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2(5), 1561-1577.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유선옥 (2020). 진정성 연구 고찰과 미래 과제에 대한 탐색: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나타난 진정성의 개념과 척도,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9(1), 403-472.

윤가영, 이준배, 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정용환 (2008). 한국의 근대적 자아: 문화적 맥락, 타자의 모방, 자기진정성. *철학연구*, 106, 263-283.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 77-85.

Barrett-Lennard, G. T. (1998). *Carl Rogers' helping system: Journey and substance*. London, UK: Sage.

Boyratz, G., & Kuhl, M. L. (2015). Self-focused attention, authenticity, and well-being.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87, 70-75.

Boyratz, G., Waits, J. B., & Felix, V. A. (2014). Authenticity, life satisfaction, and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98-505.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 245-276.
- Coscioni, V., Teixeira, M. A. P., & Paixão, M. P. (2024). Authenticity scale: Validity and reliability evidence in a sample from Brazil and Portugal. *Annals of Psychology, 40*(1), 150-162.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nglish, T., & Chen, S. (2011). Self-concept consistency and culture: The differential impact of two forms of consiste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6), 838-849.
- Erickson, R. J. (1995). The importance of authenticity for self and society. *Symbolic Interaction, 18*, 121-144.
- Everitt, B. S. (1975). Multivariate analysis: The need for data, and other problem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6*(3), 237-240.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 Goldman, B. M., & Kernis, M. H. (2002). The role of authenticity in healthy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5*(6), 18-20.
- Grégoire, S., Baron, L., Ménard, J., & Lachance, L. (2014). The authentici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French translation and exploration of its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and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6*(3), 346-355.
- Heppner, W. L., Kernis, M. H., Nezlek, J. B., Foster, J., Lakey, C. E., & Goldman, B. M. (2008). Within-person relationships between daily self-esteem, need satisfaction, and authenticity. *Psychological Science, 19*, 1140-1145.
- Hestir, B. E. (2008). A few philosophical ruminations on the human condition and choosing to live well. *Avances en Psicología Latinoamericana, 26*(1), 30-42.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 179-18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tchinson, D. S. (1995). *Ethics*. In J. Barnes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istotle* (pp. 195-232). Cambridge, UK: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Jackson, D. L. (2003). Revisiting sample size and number of parameter estimates: Some support for the N: q hypothe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1), 128-141.
- Jastrzębski, J., Karaś, D., Skurka, M., & Szewczyk, Z. (2025). Polish Adaptation of the Authenticity Scale: Psychometric Paramet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7*, 253-271.
- Jongman-Sereno, K. P., & Leary, M. R. (2019). The enigma of being yourself: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authentic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1), 133-142.
- Jourard, S. M. (1964). *The transparent self: Self-disclosure and well-being*. Princeton: Van Nostrand.

- Jourard, S. M. (1966). *Counseling for authenticity*. In C. E. Beck (Ed.), *Guidelines for guidance*, 168-176. Dubuque, Iowa: W. C. Brown.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aufman, E. A., Cundiff, J. M., & Crowell, S. E. (2015). Th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A self-report assessment of clinical identity disturbanc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1), 122-133.
- Kernis, M. H., & Goldman, B. M. (2006). *A multi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authenticity: Research and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8, pp. 284-35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line, R. B. (2013).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Y. Petscher & C. Schatssneider (Eds.),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pp. 171-207). New York, NY: Routledge.
- Knoll, M., Meyer, B., Kroemer, N. B., & Schröder-Abé, M. (2015). It takes two to be yourself: An integrated model of authenticity, its measurement, and its relationship to work-related variable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6(1), 38-53.
- Lee, H., Lou, N. M., Johnson, M. D., & Park, S. W. (2019). A socioecological perspective to understand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relationship mindsets and goal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10), 3117-3138.
- Lenton, A. P., Slabu, L., Sedikides, C., & Power, K. (2013). I feel good, therefore I am real: Testing the causal influence of mood on state authenticity. *Cognition and Emotion*, 27(7), 1202-1224.
- Lenton, A. P., Slabu, L., & Sedikides, C. (2016). State authenticity in everyday lif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0(1), 64-82.
- Lopez, F. G., & Rice, K. G. (2006).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62-371.
- Lutz, P. K., Newman, D. B., Schlegel, R. J., & Wirtz, D. (2023). Authenticity,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A multicomponent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s at the trait and state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91, 541-555.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 Mackinnon, A., Jorm, A. F., Christensen, H., Korten, A. E., Jacomb, P. A., & Rodgers, B. (1999). A short form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Evaluation of factorial validity and invariance across demographic variables in a community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405-416.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Princeton, NJ: Van Nostrand Reinhold.
- Maslow, A. H. (1971).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NY: Arkana/Penguin Books.
- McNeish, D. (2018). Thanks coefficient alpha, we'll take it from here. *Psychological Methods*, 23(3), 412-433.
- Moon, H., Kim, H., & Park, S. W. (2025). Self-identity mitigates the negative impa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elf-evaluation by reducing self-threat. *Identity*. Advance Online

- Publication.
- Nartova-Bochaver, S., Reznichenko, S., & Maltby, J. (2021). The authenticity scale: validation in Russian culture. *Frontiers in Psychology, 11*, 609617.
- Neff, K. D., & Harter, S. (2002). The authenticity of conflict resolutions among adult couples: Does women's other-oriented behavior reflect their true selves? *Sex Roles, 47*, 403-417.
- Osborne, J. W., & Costello, A. B. (2019). Sample size and subject to item ratio i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9*(1), 11.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 5447-5461.
-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Pugh, J., Maslen, H., & Savulescu, J. (2017). Deep brain stimulation, authenticity and value.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26*(04), 640-657.
- Rivera, G. N., Christy, A. G., Kim, J., Vess, M., Hicks, J. A., & Schlegel, R. J. (2019).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henticity and well-be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1), 113-126.
- Robinson, O. C., Lopez, F. G., Ramos, K., & Nartova-Bochaver, S. (2013). Authenticity, social context and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Russia: A three country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 719-737.
- Rosenberg, M. (1965).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16-36.
- Rogers, C. R. (1951). *Perceptual reorganization in client-centered therapy*. In R. R. Blake & G. V. Ramsey (Eds.), *Perception: An approach to personality* (pp. 307-327). Ronald Press Company.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pp. 181-256). New York, NY: McGraw-Hill.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MA: Houghton Mifflin.
- Schmader, T., & Sedikides, C. (2018). State authenticity as fit to environment: The implications of social identity for fit, authenticity, and self-segreg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2*(3), 228-259.
- Song, L., Zheng, J., Li, F., Zhou, Y., Li, H., & Wang, Y. (2023). Neurostructural correlates of trait authenticity: Increased surface area in the left precuneus and decreased volume in the left amygdal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8*, 112193.
- Sutton, A. (2020). Living the good life: A meta-analysis of authenticity, well-being and engag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3*, 109645.
- Theran, S. A. (2011).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 gender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4), 423-428.
- Twomey, C., & O'Reilly, G. (2017). Associations of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with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variables: A systematic review.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0*(10), 587-595.
- Thomaes, S., Sedikides, C., van den Bosch, N., Hutteman, R., & Reijntjes, A. (2017). Happy to

- be “me?” authenticity,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 being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8(4), 1045-1056.
- van den Bosch, R., & Taris, T. W. (2014). Authenticity at wo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authenticity measure at work.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1-18.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329-341.
- Wilt, J. A., Thomas, S., & McAdams, D. P. (2019). Authenticity and inauthenticity in narrative identity. *Heliyon*, 5(7), e02178
- Wood, A. M., Linley, P. A., Maltby, J., Baliousis, M., & Joseph, S. (2008). The authentic person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hentic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385-399.
- Xia, M., Lv, H., & Xu, X. (2022). Validating the Chinese version authenticity scale: Psychometrics in college and community samples. *Current Psychology*, 41, 7301-7313.
- Yan, S., & Tang, W. (2024). The influence of state authenticity on the sense of meaning in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evidence from a daily diary investigation and an authenticity enhancement experiment. *Behavioral Sciences*, 14(7), 550.

1 차원고접수 : 2025. 02. 19.

수정원고접수 : 2025. 04. 24.

최종게재결정 : 2025. 04. 2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uthenticity Scale

Joonbae Lee^{1),2)} Ye Ji Im¹⁾ So Eui Kim¹⁾ Kidong Bae¹⁾ Sun W. Park¹⁾

¹⁾Korea University ²⁾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the Authenticity Scale into Korean. The Authenticity Scale assesses an individual's authenticity through three subfactors: self-alienation, accepting external influence, and authentic living. In Study 1,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original three-factor structure, with no cross-loading items, resulting in the final selection of 12 items. In Study 2,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satisfactory model fit. Additionally,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groups was examined, confirming configural invariance, metric invariance, and scalar invariance. To assess convergent valid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ity and self-identity was analyzed. The Korean version of the Authenticity Scal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ploration in breadth, commitment making, exploration in-depth,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 and consolidated identity, while demonstrating negative correlations with ruminative exploration, disturbed identity, and lack of identity. Concurrent validity was examined by analyzing relationships between authenticity,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affe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authentic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while nega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affect. This study presents a reliable and valid Authenticity Scale that can be used in Korean cultural contexts.

Keywords: authenticity, Korean Authentic Scale, self-identity, scale validation